



제4강 -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새로운 투쟁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1. 투쟁철학으로서의 생철학

갈등. 싸움. 투쟁. 전쟁. 이런 개념들을 니체는 좋아했다. 싫어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왕따가 나쁘다고 외쳐대도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쁜 잡초처럼 늘 작거나 크게 존재한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재미난 놀이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해도 싸움은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한다면 감정을 바꾸는 수밖에. 그것을 좋아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이 싸워야 할 대상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까? 그것은 아마도 이성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닐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성의 노예이기도 하다. 생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각의 피조물이기도 하다. 생각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람이 먼저일까? 무의미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프라이가이스트 Freigeist', 즉 자유정신에 폭 빠져 지내던 1878년 7월 15일 마틸데 마이어 Mathilde Maier에게 보낸 편지글에 이런 말이 들어 있다. "이성에 대한 이성의 투쟁"¹⁾이라는 말이. 니체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에서의 이성은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성이고, "이성의 투쟁"에서의 이성은 니체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혹은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성이다. 즉 싸움에 동원되어야 할 무기로서의 이성이다. 니체는 이성을 위해 이성에 대항하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투쟁철학이다. 싸움을 중용하는 철학이다. 싸울 의지가 없다면 허무주의는 그저 잔소리에 불과한 개똥철학쯤으로 전락하고 만다. 헛소리가 난무하는 그런 잡글로 읽혀질 뿐이다. 이성으로 잘 차려입은 이성의 의상을 한 꺼풀 한 꺼풀 벗어던지고 전라全裸의 모습으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허무함으로 채색해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검증대 위에 올라가보자. 그리고 허무주의 철학이 싸워야 할 이성의 최정상에는 신이 있다. 싸울 용기가 있는가?

새로운 투쟁, - 부처가 죽은 후에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그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이 그렇듯이, 앞으로도 그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 우리는 그 그림자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 (183쪽)

"신은 죽었다." 허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문구이다. 쇼펜하우어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문장에서 염세주의 철학을 키워냈다면 니체는 "신의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허무주의 철학을 완성해낸다.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1:2)라는 말을 할 때는 신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아니 신의 영역은 정반대의 소리로 말을 하면 된다. '가치 있고 가치 있으며 가치 있고 가치 있으니 모든 것이 가치 있도다'라고. 하지만

1) , Rüdiger Safranski: Nietzsche. Biographie seines Denkens, Frankfurt am Main 5/2010, 138쪽; "der Kampf mit der Vernunft gegen die Vernunft".

그 가치가 의심스러워질 때 허무가 시작된다. 니체식으로 말을 하면 허무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허무주의의 쓰나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생각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모든 것이 통째로 헛되다고 그래서 신까지도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할 때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신은 죽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 있다'고. 허무주의 철학에 위배된 발언은 결코 아닐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사고의 체계를 인간 중심으로 바꿔놓고자 한다. 생각의 중심에 신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간을 대체하고자 한다. 이성을 제거하고 이성을 대체하고자 한다. 신적인 이성을 없애고 인간적인 이성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한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너'를 없애고 '나'를 세우고자 한다. 이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일까?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신 없이는 아무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 죽었다니!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말을!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말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변호할 때도 니체의 입은 거침이 없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외쳐댄다. 인간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작정이다. 이성을 위해서라면 이성이라도 희생할 태세다.

하지만 신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신은 죽지 않는다. 신은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성적 존재는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성을 인정하는 한 신은 최고의 존재로서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것이다. 억억억만 더하기 억억억만은? 양팔을 활짝 편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에 과연 무엇이 대적할 수 있으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만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신의 사랑에 버금갈까?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 무궁무진하다. 그 영원성 속에 신이 존재한다. 그 전지전능한 신을 향한 선전포고,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신은 인간의 문제이다. 신을 둘러싼 학문, 신학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한때 신학은 모든 신학의 군주로서 군림하기도 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필로조피아 안칠라 테오로기아에' *Philosophia ancilla theologiae*, 즉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뜻이다. 이런 시대가 바로 중세였다. 중간에 낀 시대였다. 그 중세를 앞뒤로 하여 인간이 주인공인 시대가 펼쳐진다. 신학이 아닌 인문학이 대세를 이룬 시대였다.

중세 이전을 우리는 고대라 부른다. 그때는 인간성이 근간을 이룬 개인이 신이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아폴론은 태양을,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등으로 각각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신을 주장했다. 이런 세계관을 깬 것이 바로 중세적 발상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외쳐댄다.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중세는 천년이 넘도록 세상을 지배한다. 중세가 무너지는 데 천년이 넘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신의 문제는 한 두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죽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처럼. 지역감정처럼. 보수와 진보의 갈등처럼. 중세는 이런 느낌이었다. 답답하다. 암울하다. 그래서 아에타스 옵스쿠라 *Aetas Obscura*, 즉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빛을 상실한 시대라고. 이성이 아닌 이성이 빛으로 불리는 시대라고.

근대는 르네상스라 불린다. '새로 태어남'을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금수저 논란처럼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회는 깨져야 한다. 계급이 대물림되는

사회,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져야 한다. 무너짐, 몰락, 붕괴, 파괴, 그것이 고정된 관념의 운명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온갖 고정관념과 맞짱을 뜨고자 한다. 갈등, 투쟁, 싸움, 전쟁 등의 개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신은 상상만큼이나 다양한 존재로 모습을 바꾼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만 신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처도 신이다.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부처는 신도 아니다. 신 축에도 끼지 못한다. 하지만 남의 종교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않도록 하자. 하나의 종교를 접할 때 그 종교의 규칙이 인정하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탁자 위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고 절을 해도 그것은 이미 신의 형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절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또한 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신이, 즉 “부처가 죽은 후에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그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그림자를 크게 키운 것은 과연 누구일까? 왜 키웠을까? 아니 어쩌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성의 산물인지도 모를 일이다. 두 사람만 넘어가면 사실도 이상하게 부풀려져 마치 신화처럼 채색되기도 하지 않은가. 하물며 수세기 동안이라면 어떠할까. 전해지고 전해진 말이 만들어낸 사물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

“신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림자의 존재가 되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저런 그림으로 재생산되고 이런 저런 상징으로 되살아난다. 그것을 믿으며 신앙이라는 체계가 세워진다. “앞으로도 그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은 늘 인간의 문제가 되어 인간과 함께 공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늘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라 할지라도 니체는 싸워 이겨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 우리는 그 그림자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것이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다. 그의 명령이다. 이겨야 한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투쟁”은 그러니까 그림자와의 투쟁이다. 져서는 안 되는 투쟁이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투쟁이다. 새로운 투쟁에 임할 준비가 되었는가? 허무주의적 투쟁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기 전에 이제까지 획득한 인식의 갑옷을 입기로 하다.”(비극, 121쪽) 싸우기 전에 제대로 무장해야 한다. 누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결단코 실패를 알보면 안 된다. 한 번의 실패가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의 그림자와의 싸움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 “경계하자!”(183쪽) “새로운 투쟁” 다음에 이어지는 잠언의 제목이다.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모두 일곱 번 반복된다. “경계하자”는 말이. 여기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경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삶을 늦추지 않는 경계와 함께 지켜내야 한다. 끊임없이 보초를 서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배워야 한다. 무엇이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지 배워야 한다. 사상가는 그림자를 그림자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

이제 사상이란 진리에의 충동이 생명을 보존하는 힘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에의 충동과 생명을 보존케 하는 오류가 그의 안에서 서로 투쟁을 벌이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투쟁의 중요성과 비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187쪽 이후)

왜 진리가 중요할까? 왜 진리가 중요해야 할까?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에서 정의하는 진리는 삶을 옹호하고 변호해야만 한다. “진리에의 충동이 생명을 보존하는 힘이라는 것”은 허무주의 철학이 필요로 하는 나침반과 같다.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황량한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좌표와 같다. ‘생명’을 위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름답다.

하지만 진리가 진리로 입증된 이후에는 어떠해야 할까? 허무주의는 머물지 못하도록 다그친다. 한 순간도 게으르지 말라고 몰아세운다. 이성적 행위는 징검돌을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떠나라’고 외쳐댄다. 하나의 진리에 머무르는 것은 오류다. 그것은 실수다. 진리는 진리로 맞서야 한다. 이성에는 이성으로 맞서야 한다. 투쟁은 새로운 투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이 되고, 그 현재의 것은 또 다시 과거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성을 이성답게 해준다. 일 더하기 일은 이, 이 더하기 이는 사, 도대체 언제 이성은 만족을 할까? 백만? 천만? 억? 이성은 계산능력일 뿐이다. 계산된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 내용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니체가 원하는 이성은 이것에 대가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성의 달인이 되기를 요구한다.

사상가는 “투쟁을 벌이는 존재를 의미한다.” 투쟁을 일삼는 전사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투쟁의 중요성과 비교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투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생철학이 주목하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공부 다 했다’는 말은 모순이다. 인생에서 공부는 끝나지 않는 투쟁과도 같다. 매일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투쟁하여 쟁취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깨달음은 한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비우고 비워야 가능한 일이다. 채우고 채워야 실현되는 기적이다. 깨달음은 산 자의 문제이다.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직면해야 할 문제이다. 삶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흘러야 물이 깨끗한 것처럼 삶은 살아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식은 늘 또 다른 인식을 받아들이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인식다운 것이다. 끊임없이 바뀌는 새로운 얼굴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이성은 이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이성은 이때 삶을 주관하는 힘이 된다. 이때 건강한 허무주의적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흥겨운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삶에게 이성과 논리란 무엇인가?

삶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인생이란 인간이 사는 모습 전부와 관련한 말이다. 생철학은 삶, 즉 인생을 연구한다. 니체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런 것뿐이다. 삶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 한다. 인생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거부의 뜻을 밝힌다.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한계라면 한계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면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삶을 너무 멀리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끼게 되면 니체의 생각도 그리 낯설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무심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오히려 미안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니체의 글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한

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반성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우리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삶의 조건을 둘러싼 최후의 물음이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실험을 통해 이 문제에 대답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어디까지 체화를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며,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이다. (188쪽)

허무주의 철학이 던지는 최후의 물음과 그에 대한 최초의 시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²⁾가 떠오른다. 인식은 악수를 하게 해준다. 그 손잡음은 구원의 손길처럼 따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영혼을 빛 속으로 인도해줄 것이다. 다만 인생의 문제는 “진리가 어디까지 체화를 견딜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어디까지 알고 죽을 것인가?

인간의 문제는 이성과 연결된다. 생각이 문제라는 얘기다. 밥 먹고 자고 배출하는 동물적인 차원의 문제는 사실 절반의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다. 동물적인 생활만이 전부라면 감옥에서 사는 것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낮선 곳에 가면 낮선 생각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낮선 말, 낮선 가치관, 낮선 역사 등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 그 자체에 집중해보자.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니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논리적인 것의 유래, - 인간 머릿속의 논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그 영역이 원래 엄청나게 광대했던 비논리에서 생겨났음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것과 다르게 추론했던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사멸했다. 하지만 그들의 추론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웠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나 적대적인 동물과 관련하여 “동일한 것”을 충분히 제대로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 환원적 추론을 하는 데 너무 더디거나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은 모든 유사한 것에서 즉시 동일성을 찾아내는 사람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 지배적인 경향이 원래 그 자체로서 동일한 것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논리적인 경향이 논리학의 모든 토대를 만들어냈다. 마찬가지로 논리학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현실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없는 실체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물의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았던 자가 모든 것을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던 자보다 더 앞으로 도약했던 것이다. 추론을 할 때 보다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모든 경향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다. 그 반대되는 경향, 즉 판단을 보류하기보다는 차라리 긍정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거나 꾸며내고,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의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차라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도록 키워지지 않았더라면, 단 하나의 생명체도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사유와 추론의 진행 과정은 개별적으로는 그 자체로

2)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과지성사 1995, 126쪽.

서 전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충동들의 진행 과정 및 투쟁과 일치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지 그 투쟁의 결과만 경험한다. 이 태고에서 유래한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 안에서 너무 빨리 그리고 숨겨진 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188쪽 이후)

이 잠언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 “삶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다”, “단 하나의 생명체도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구절들이다. 생존, 삶, 생명체, 이런 말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이 삶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일까? 니체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인간의 문제로서 ‘논리’를 주목하고 있다. 잠언의 제목은 “논리적인 것의 유래”라고 밝혔다.

“논리적 충동은 결코 자기 자신을 향하지 못했다.”(비극, 107쪽)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면서 한 소리다. 논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자기 자신을 향한 길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길에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가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꼬이고 만다. 논리는 과정이요 방법일 때에만 가치가 있다. 논리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을 예로 들어보자. 수학의 천재가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은 현실적인 감각이다. 삶을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삶 속에서 창조적으로 살고 싶다면 논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논리를 깨야 한다. 하나의 논리가 문제되는 것이다. 하나의 논리에 얽매일 때 삶은 거칠어진다. 예술이라기보다는 조잡한 모방의 산물이 된다.

논리! 이성적 존재에게 논리는 환상과도 같다.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끝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논리의 끝은 없다. 논리는 이성 그 자체처럼 원리에 불과하다. 내용물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틀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논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들은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논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논리들! 이들은 서로 경쟁과 투쟁을 거듭하며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의 뒷안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아쉽게도 우리는 늘 “그 투쟁의 결과만 경험”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투쟁에서 살아남은 결과만 배울 뿐이다.

예를 들어 지금이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논리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논리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니체의 허무주의적 생각의 경로이다. 그래서 그는 문헌학적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늘 ‘유래’를 주목한다. 근원을 추궁한다. 사물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을 바라보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으며 눈을 뜨려는 것이다. “제3의 눈”(아침, 380쪽)은 그때 떠지는 그런 눈이다. 삶의 현장을 무대의 상황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다.

니체는 우선 질문부터 시작한다. “인간 머릿속의 논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하면서 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나는 짜장면이 좋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때를 상상해보자. 누가 이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짬뽕’을 권한다면 쉽게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는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대해 누군가가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라는 논리를 그에게 관철시키고자 할 때 그 의도는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논리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의 《수사학》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비투스

habitus'에서 기인하는 습관에 의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³⁾ 아비투스⁴⁾가 무엇인가? 아비투스의 다른 말은 '성격'⁴⁾이다. 논리! 그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행해질 뿐이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라고나 할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논리가 진리로 간주되면서 시작된다. 하나의 논리가 다른 논리와 투쟁하여 승리를 거두면서 전면에 나선다. 그리고 투쟁에서 진 논리는 자취를 감춘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논리에 대해 관심을 써주지 않는다. 무관심 속에 그 논리는 서서히 잊혀져간다. 언젠가 니체는 논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임을 시사한 바 있다. “진리는 힘을 필요로 한다. - 진리 그 자체는 힘이 아니다.”(아침, 391쪽)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이해한다. 사랑이 빨간색일까? 평화가 파란색일까? 살색을 우리는 어떻게 칠하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아비투스’에서 기인하는 습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습관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어떤 때는 열정으로 습관을 형성해야 할 때도 있다. 좋은 습관이 생겨야 삶의 무게는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습관은 권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상이라는 틀은 습관이 생기면서 형성된다. 그런 습관은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만다. 그때는 습관에 대해 반기를 들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나쁜 습관이라는 감정으로 맞서야 한다. 진리가 되어버린 논리는 허무주의 철학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그리고 판결을 위한 엄중한 심문과 검증이 이루어진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내세우는 대전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논리가 비논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영역이 원래 엄청나게 광대했던 비논리에서 생겨났음이 분명하다.” 이론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문장이다.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다. 이 문장은 번역본을 기준으로 볼 때, 8줄 아래에 형태를 달리 하여 다시 반복된다. “비논리적인 이 경향이 논리학의 모든 토대를 만들어냈다.” 비논리적이었던 것이 힘을 얻으면서 진리라는 감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을 바라볼 때 니체의 시선은 굵지 않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인간적1, 25쪽) 지극히 허무주의적이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것과 다르게 추론했던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사멸했다. 하지만 그들의 추론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웠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행운의 편지 한방으로 거인을 쓰러뜨렸다면 승부는 인정받기 힘들다. 재시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진검승부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단지 여론에 의해 승부가 가려진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군중심리를 이용해 거둔 승리라면 그것도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패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승자 독식논리로 입막음하려 해서는 안 된다. 허무주의 철학은 아쉽게 사라져간 모든 가치에 대해 ‘제3의 눈’을 뜨려고 애를 쓴다.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논리조차도 의혹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과 하나 더하기 사과 하나가 이다. 이 주장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다. 하나! 그 일에 상응하는 동일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논리학에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현실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이 없는 실체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사물의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결과임에 틀림없다.”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일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 더하기 일은 이는 논리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 실체는 없다. 이 말을 이해하겠는가? 물론 쉽지 않은

3) :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위의 책, 13쪽.

4) <https://de.wikipedia.org/wiki/Habitus>

인식의 경지다. 이해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그것이 이해된다면 이미 니체는 놀이터나 다름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세상은 느린 것에 대해 냉정하다. 오로지 빠른 것만이 진리의 월계관을 쓴다. 마치 올림픽의 구호처럼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타우스”^{citius, altius, fortius}⁵⁾, 즉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뭐 이런 논리만이 적용될 뿐이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전부다. “다시 말해 환원적 추론을 하는 데 너무 더디거나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은 모든 유사한 것에서 즉시 동일성을 찾아내는 사람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생존의 가능성이 적다. 그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추론을 할 때 보다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모든 경향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온다.” 생각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크다. 현실은 늘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살벌한 곳이다.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성이 옳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저항할 힘이 없으면 패배의 쓴 맛을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허약한 자의 운명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자는 공격해오는 그 목소리에 맞춰 사는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의무이다. 살아남기 위해 힘을 가져야 한다. “그 반대되는 경향, 즉 판단을 보류하기보다는 차라리 긍정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거나 꾸며내고,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동의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차라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도록 키워지지 않았더라면, 단 하나의 생명체도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리석은 핵전쟁 따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힘들을 통제 하에 둘 때에만 실현된다. “자유지론이란 인간의 금지와 힘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아침, 144쪽) 허무주의 철학은 사막처럼 황량한 허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추구한다.

논리에 대한 회의는 진리, 즉 정답을 추구하는 모든 이성적 노력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이성은 그 자체로는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성은 늘 그 내용물에 의해 이해가 될 뿐이다. 예를 들어 이성은 기름이 발려진 공과 같다. 아무리 그 위에 서보려 해도 좌로나 우로 혹은 앞으로 혹은 뒤로 미끄러져 내리고 만다. 이성 그 자체 위에는 도저히 설 수가 없다. 같은 예로 이성을 통해 현재를 생각해보려 해보자. 제아무리 현재를 생각하려 해도 미래와 과거만이 생각될 뿐이다. 1초 앞의 미래도 미래는 미래다. 그리고 1초 이후의 과거도 과거는 과거다. 도대체 현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성은 이 질문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논리, 이성, 생각 등 수많은 개념들이 인간이라는 속성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를 주목하게 된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추궁한다. 답을 찾아내는 즐거움에 길들여져 있다. 문제집을 풀어내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인생이 펼쳐지는 현실에서는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원인과 결과라는 이원성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앞에는 연속이 있을 뿐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것을 분리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운동을 고립된 점들로서 인지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는 것이다, 수많은 결과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성은 우리를 혼란에 빠트린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만 순간성이다, 이 순간성의 짧은 시간 안에는 우리의 지각

5) https://de.wikipedia.org/wiki/Olympische_Spiele

에서 벗어나는 무한히 많은 과정이 있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들처럼 자의적으로 구분되고 분할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속으로서 볼 수 있는 지성적 존재, 생성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 그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을 내버리고 모든 조건성을 부인할 것이다. (190쪽)

삶이 원인과 결과로 결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원인에서 똑같은 결과가 산출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이런 망상일랑 버리자. 그런 것은 유지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자진 존재가 약한 부분은 순간에 대한 이해이다. 현재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다.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성의 한계다. 늘 이성은 자신의 아비투스, 즉 성격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성 때문에 인간은 늘 과정 속에 존재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앞에는 연속이 있을 뿐”이다. 자기 인생이라고나 할까. 하나의 연속! 그것만을 인지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수많은 다른 연속을 지나치게 한다. “우리의 지각에서 벗어나는 무한히 많은 과정이 있다.” 또 스스로 인지하는 연속조차도 원인과 결과라는 분절된 형식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을 모르는가? 과연 우리가 인생을 모를 수 있는가? 아니라면 인생을 제대로 아는가? 이것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상황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원인과 결과로 엮어진 모든 논리를 거부한다. 문제와 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거부한다. 이때 허무가 도래한다. 허무함이 삶을 지배한다. 마치 예방주사가 몸속에 투입하는 독처럼 허무는 삶 속으로 퍼져간다. 충분히 건강하지 않은 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에게 그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형집행과도 같은 것이 되고 만다. 하지만 충분히 강한 자에게 독은 생명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허무는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을 내버리고 모든 조건성을 부인할 것이다.” 그동안 믿어왔던 진리는 이제 진리가 아니다.

독은 다른 독과 경쟁한다. 모든 독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서로에게 위협적인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서로가 힘을 합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그런 경지를 지향한다. 모든 독들을 섭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말이다. 그의 철학이 힘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세상에는 실로 “삶에 커다란 위험”(189쪽)들이 즐비해 있다. 그렇다고 기를 펴보지 못하고 살 수만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야 하지 않을까.

독毒의 가르침. - 과학적 사고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며, 이 모든 필요한 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창안되고 훈련받고 보살펴져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힘들은 과학적 사고 안에서 서로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작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독으로 작용했다. 그러한 독의 예로서 의심의 충동, 부정의 충동, 기다림의 충동, 수집의 충동, 해체의 충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충동들을 배우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것들 서로가 한 인간 속에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 힘의 기능들로 느끼게 되기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희

생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사유가 예술적 힘과 삶의 실천적 지혜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경지, 또한 보다 고도의 유기적 체계가 형성되어 이런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학자, 의사, 예술가, 입법가들이 가난한 고대의 유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지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191쪽)

독은 존재한다. 무엇이든 독이 될 수 있다. 누구에게 독은 누구에게 약이 되기도 한다. 독과 약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움이 되면 약이고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면 독이 된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이미 약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상관 관계 속에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삶의 논리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새로운 눈”(아침, 339쪽)을 역설한 바 있다. 그때 그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눈을 지향했었다. 그것을 두고 그는 “과학적인 ‘복음’ 그 자체”(아침, 340쪽)라고 까지 주장했었다. 그리고 위의 잠언에서 그는 “많은 것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궈낸 것을 “과학적 사고”라고 일컫고 있다. 과학은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독단을 지양한다. 과학적 사고는 하나의 정답을 고집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고는 모든 상황을 가능성의 범주 안에 둔다.

“이 모든 필요한 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창안되고 훈련받고 보살펴져야 한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바다. 창안, 훈련, 보살핌이라는 삼박자는 허무주의라는 생철학을 일궈내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삼박자는 오로지 “필요한 힘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이 힘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근육이 느껴질 때까지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모든 상황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삶의 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힘은 오로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힘으로 변할 수 있는 독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한 독의 예로서 의심의 충동, 부정의 충동, 기다림의 충동, 수집의 충동, 해체의 충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충동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삶을 위기 상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의심, 부정, 기다림, 수집, 해체 등에 대한 충동이 그 반대의 충동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그 힘은 지극히 위험한 독으로 작용하고 만다. 그래서 삶은 이러한 개별적인 충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충동들을 배우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것들 서로가 한 인간 속에서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 힘의 기능들로 느끼게 되기까지” 허무주의 철학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사멸”(188쪽)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아직도 이러한 과학적 사고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성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답들 모든 진리들 모든 사실들은 아비투스, 즉 개인적인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사유가 예술적 힘과 삶의 실천적 지혜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경지, 또한 보다 고도의 유기적 체계가 형성되어 이런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학자, 의사, 예술가, 입법가들이 가난한 고대의 유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지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니체의 한탄 소리다.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과학적 사고와는 상관없는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대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힘과 삶의 실천적 지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르네상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3. 허무주의적 시각에 의해 한계를 드러낸 도덕의 진의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완벽한 도덕은 없다.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도덕은 없다.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도덕은 없다. 시대마다 도덕적 잣대가 다르고 나라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도덕은 좋다!’ 혹은 ‘도덕은 옳다!’고 말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고자 한다. 이성온 이상형을 추구한다.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최악의 것을 혐오한다. 일 더하기 일은 이, 이 더하기 이는 사 그리고 그 다음은? 억만 더하기 억만은? 모든 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이성온 늘 궁극적인 것을 상상해낸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름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도덕적인 것의 범위, -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과거의 모든 경험에 의존하여 새로운 상으로 구성해낸다, 그 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우리가 지닌 솔직함과 정의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도덕적 체험 외에 다른 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감각 지각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191쪽)

도덕적인 것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것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이다. 도덕적 판단은 모두가 옳고 그름, 즉 선과 악의 판가름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 짝이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평가하려 든다. 성경에서도 이런 행동은 지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누가복음6:42)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도덕으로 형성된 이유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니체는 우리가 듣는 소리들조차 개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청각의 한계, - 인간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듣는다, (231쪽)

“도덕적인 것의 범위”는 지극히 좁다. “과거의 모든 경험에 의존하여 새로운 상”을 만들어 본다고 한들 그것조차 지극히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듣고자 한 것만 들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청각의 한계에 국한된 얘기일까? 절대로 아닌 것 같다. “심지어 감각 지각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내는 상이란 절대로 진리의 탈을 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우리가 지닌 솔직함과 정의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영역에서 인간은 오로지 “도덕적 체험 외에 다른 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이란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납득이 갈 것이다.

무리 본능, - 도덕과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충동과 행동에 대한 평가와 그 서열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와 서열은 항상 공동체와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의 표현이다. 이 공동체와 집단에 첫 번째로 유익한 것이 - 두 번째와 세 번째도 - 또한 모든 개인들에게도 최상의 가치 척도이다. 도덕에 의해 개인들은 집단의 기능이 되고, 또 오로지 기능으로서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도록 인도된다. 하나의 공동체가 보존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공동체의 그것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매우 상이한 도덕들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집단과 공동체, 국가와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우리의 도덕과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도덕이 존재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이다. (192쪽 이후)

도덕을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가 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전제를 인정한다. 그래서 도덕은 '무리 본능'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이다."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는 개인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도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부분이다. 도덕이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모든 이들은 사회적 의식, 즉 집단적 의식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런 주체적인 의식에는 도덕을 위한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모습이 바로 허무주의 철학의 모습이다. 삶의 주인의식을 변호하려는 생철학의 진면모이다.

대부분 어른들이 도덕을 요구한다. 도덕은 기성세대가 내세우는 잣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은 대부분 도덕의 옹호를 받게 된다. 반대로 새로운 것은 도덕의 홀대를 받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덕은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도덕은 낯선 것을 혐오한다. 그러면서 도덕은 일종의 "최상의 가치 척도"를 만들어낸다. 이 척도에 의해 선과 악이 구별되고 옳고 그름이 규정된다.

그리고 하나의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사물에 대한 평가와 서열이 규정된다. "도덕과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충동과 행동에 대한 평가와 그 서열을 발견하게 된다." 도덕이 있는 곳에 '평가와 서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악함 등이 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때 중세와 같은 암흑기가 펼쳐지고 만다. "도덕에 의해 개인들은 집단의 기능이 되고, 또 오로지 기능으로서만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도록 인도된다." 도덕적 가치를 준수하는 한 개인은 집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창조적 삶의 실현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도덕적 인간은 창조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도덕적 '무리 본능'에 저항한다. 삶을 예술로 간주하고, 또 그러한 삶을 창조적으로 펼치기 위해 도덕은 걸림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삶을 변호하기 위해 니체는 이 세상에 "매우 상이한 도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유일무이한 도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덕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의 도덕과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도덕이 존재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이다." 도덕을 향한 니체의 비판이다. 도덕성에 얽매이는 한 개인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 허무함에 내몰리는 이유는 이런 도덕성에 평생을 내맡겼기 때문이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도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앞서 이런 말도 남겼었다.

“우리는 도덕 위에도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 매 순간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직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뛰놀 줄 알아야 한다!”^(180쪽) 허무주의 철학은 도덕 위에서 뛰놀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허무주의가 지향하는 광기의 철학

반진^{Wahnsinn!} 일반적으로 광기라고 번역한다. 진정으로 생산적인 인간은 늘 광기의 모습을 보여 왔다. 왜 그럴까? 이유는 창조적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는 기존의 것을 거부하면서 탄생한다. 남다르다. 똑같지 않아서 창조라 부른다. “그야말로 모든 시대의 가장 생산적인 인간들이 아마 겪었을 가장 쓰라리면서도 황량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누가 감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아침, 31쪽)하고 니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혹을 제시했었다. 범인^{凡人}은 천재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때 니체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아, 그대 하늘에 있는 자들이여, 광기를 주소서! 마침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광기를 주소서!”^(아침, 32쪽)하고. 니체는 광기를 소원했었다.

니체가 소원했던 광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기반이었다. 이제 니체는 광기와 함께 도덕적인 ‘무리 본능’에 맞서고자 한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집단에 맞서고자 한다. “여론에 맞춰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반시대Ⅱ, 183쪽)에 맞서고자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풍속과 의견 뒤에”^(반시대Ⅲ, 391쪽) 숨기고 위축은 듯이 살아가는 나약한 군중에 맞서고자 한다. 개인 대 다수의 대립, 그것을 감당하려면 광기가 아니고서는 턱도 없다. 치명적인 상처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그만큼 위험한 철학이다.

집단의 양심의 가책, - 인류의 기원 이래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심의 가책이 존재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부심을 지니고, 자신이 의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느낀다, 우리의 모든 법률 선생들은 개인의 그러한 자아 감정과 쾌락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마치 이것이 예전부터 법률의 기원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구한 시간 동안 인류에게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다. 홀로 있는 것, 혼자라고 느끼는 것, 복종도 없고 지배도 없는 것, 개인을 의미하는 것 - 당시에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징벌이었다. “개인이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 사상의 자유는 불안 그 자체로 여겨졌다, 오늘날 우리는 법과 질서를 강압과 피해로 느끼는 반면에, 과거에는 이기주의가 고통과 궁핍으로 여겨졌다,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것, 독자적인 척도와 저울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당시에는 사회적 취향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향을 지닌다는 것은 광기로 여겨졌다, 혼자라는 것은 모든 공포, 모든 불행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자유로운 의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 대해 양심이 없는 것이었다, 자유롭게 행할수록, 개인적 감성이 아니라 무리 본능이 행동에 더 많이 나타날수록, 그만큼 더 사람들은 자신을 도덕적이라고 평가했다, 집단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은, 개인이 그것을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개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집단 전체에게도! 이 점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아왔다,
(193쪽 이후)

“당시에”, “길고 긴 시간 동안”, “장구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기를 선호했다. 스스로 도덕적이기를 원했다.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었다. 앞선 잠언에서 “도덕성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192쪽)이라는 정의가 있었다. 그때 등장했던 “무리 본능”은 이번에도 등장한다. 그 “무리 본능이 행동에 더 많이 나타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집단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오랫동안 이것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다.

당시에는 그랬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것, 독자적인 척도와 저울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광기로 여겨졌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취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허무주의 철학에서 광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막중하다. 어쩌면 이 철학의 핵심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니체의 철학과 인생이 한 데 어우러지는 점점이기도 하다. 그는 미쳤었다. 그리고 11년 동안 정신적 어둠 속에서 여생을 보내다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들을 한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함부로 미쳤었다고 또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광기에 대한 해석이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 즉 전통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단 한번도 니체의 정식 속에서 광기를 들어다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있었어도 그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광기! 허무주의 철학은 광기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그 철학 전체가 “사회적 취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는 소크라테스 이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성에 반했고, 《반시대적 고찰》에서는 여론 뒤에 숨어 있는 시대정신을 비판했으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는 신적인 것에 반기를 들었고, 《아침놀》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라왔던 도덕에 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즐거움의 학문》을 읽고 있다. 생의 예찬과 삶의 즐거움을 맛아가는 온갖 학문에 저항하고자 한다. 여기서 니체는 광기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다. 광기가 하나의 철학적 모티브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글에서 ‘오늘날’ 혹은 ‘현대’가 언급될 때 우리는 감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때로는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비판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처럼 변호를 하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것을 곱게 보지 않았다. 과거에는, 그것도 오랫동안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는 것”조차 두려운 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징벌”로 평가되었다. “‘개인이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사상의 자유는 불안 그 자체로 여겨졌다.” 과거에는 그랬다. 오로지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미덕이었다. 무리 본능만이 옳은 것이었다. 양심은 집단과 무리 속에서만 안정을 보장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상황이 변했다. ‘긴 19세기’⁶⁾를 거치면서 귀족은 서서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시민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혼자가 무섭지 않다. 오히려 그 혼자가 되는 상황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부심을 지니고, 자신이 의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느낀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과거에는 이기주의가 고통과 궁핍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광기로 평가되던 것이 이제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되고 만 것이다.

6) , 이동용: 바그너의 혁명과 사랑, 이파르 개정증보판/2012, 31쪽.

《아침놀》에서 니체는 이미 “도덕의 역사에서 광기가 갖는 의미”라고 제목이 붙여진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원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후 대체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공동체들은 ‘풍습의 윤리’에서 비롯된 저 가공할 중압 속에서 살아왔다(우리 자신은 예외로서의 작은 세계에, 이른바 사악한 지대에 살고 있다)”(아침, 29쪽 이후)고. 중압 속에 살고 있지 않아서 사악하다. 집단 의식을 갖지 않아서 사악하다. 무리 본능을 가지고 살지 않아서 사악하다. 도덕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사악하다. 하지만 그 사악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다. 스스로 광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동체들은 풍습의 윤리에서 비롯된 저 가공할 중압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중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사상의 자유를 불안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자유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을 뿐이다.

훗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너희를 혀로 핏을 번갯불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에게 접종했어야 할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내놓는다. “보라, 나 너희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그가 바로 번갯불이요 광기다!”(차라, 20쪽) 차라투스트라는 광기의 화신이다. 그는 전통의식과는 상관없는 아니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이다. 그는 번갯불이다. 번쩍거림이다. 순식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번갯불이다. 허무주의에 접종이 되면 예상치 못한 건강이 보장될 것이다. 니체가 준비하고 있는 광기의 번갯불은 일순간에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견뎌내야 한다. 수많은 먹구름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

물론 이때에는 어떤 한 사람에게 건강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에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병 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덕의 발전을 위해 병이 없어도 될 것인가, 인식과 자기인식을 향한 우리의 갈증은 건강한 영혼만큼이나 병든 영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중요한 물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오직 건강만을 추구하는 의지는 편견과 비겁, 일종의 세련된 야만과 후진성일지도 모른다. (196쪽)

건강은 질병을 전제한다. 질병은 극복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나아야 하는 것이다.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삶은 질병을 이겨낼 때에만 가능하다. 질병이 삶을 지배하면 죽음이 덮쳐온다. 죽고 싶지 않으면 질병에 맞서야 한다. 질병에 맞서 삶을 보호해야 한다.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허무하다. 허무함으로 삶을 변호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질병과 건강이 공존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바라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질병을 제거하고 건강만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힘을 요구할 뿐이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병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기에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그런 힘에 대한 느낌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번갯불을 원하면 두꺼운 먹구름을 모아야 한다. 밤이 깊을수록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비상할 이유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갖게 된다. 위험한 싸움일수록 영웅의 탄생은 더욱 강렬해진다. 명랑해전에서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과 싸웠다고 한다. ‘생즉필사(生即必死, 사즉필생(死即必生),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명언은 이때 탄생한 것이다.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청춘을 바쳐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다. 전생애를 걸고 모험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다.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야 하는 용기다.

“결국 우리가 병 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은 이제 해결되었다. 병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고통 없이 강해질 수가 없다. 질병은 와야 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 질병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삶의 과정이다. 힘들 때 너무 비굴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잘 될 때 너무 기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매사에 신중하되 때에 따라서는 집중하고 때에 따라서는 진정으로 즐겁게 놀 줄도 알아야 한다. 괴테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전했던 거인의 조건들을 기억해보자. “나 여기 앉아 인간을 만드노라 / 내 모습 그대로 / 나처럼 / 괴로워하고 울고 / 즐기고 기뻐하며 / 그리고 너의 종족을 존경하지 않는 / 나를 닮은 종족을”⁷⁾에서 거인을 닮은 우리는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울 줄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즐길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존재, 즉 ‘너의 종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거인의 모습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비극의 탄생》의 표지모델이기도 했다. 니체는 그 거인의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해놓았던 것이다. 독수리가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는 그 고통이 있어야 저항의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것이 열정의 불꽃이 되어 삶을 불태운다. 고생은 해야 한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1-65)}는 “돌길을 통해 별들에게로!”⁸⁾라는 명언을 남겼다. 불편해 봐야 편함의 가치를 안다. 사랑을 해 봐야 이별의 아픔을 안다. 이별의 상처가 남기는 그 다양한 아픔들을 견뎌내고 나서야 삶과의 궁극적인 이별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죽기 싫어 발버둥치는 꼴사나운 짓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삶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니체는 삶을 하나의 이념 속에 가둬놓고자 허무주의 철학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성엔 늘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지만 삶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편할까. 정해진 길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서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 이 영원한 숙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당돌한 철학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져진 그 정답조차 허무함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끊임 없는 극복만이 삶을 삶답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삶에 임한다.

삶은 논증이 아니다. -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를 머릿속에 만들어왔다. 물체, 선, 면, 원인과 결과, 운동과 정지, 형상과 내용 등과 같은 믿음의 조항들이 없다면 이제 아무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들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은 논증이 아니다. 삶의 조건들 중에는 오류도 있다. (196쪽)

삶은 말로 설명될 수는 있어도 그 설명이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많은 시인들이 삶을 표현해냈지만 아직도 삶이 완전히 표현된 적은 없다. 늘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다양성은 삶을 복잡하게 보이게 한다.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힘들다. 이때 삶의 무게는 가중된다. 운다고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은 포기하면 할수록 더욱 흉측한 괴물로 변해간다. 삶은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더욱 강렬하게 미래를 남긴다.

7)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239쪽.

8) 제인용,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31쪽.

이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늘 이성의 도구인 말을 가지고 삶과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말이 진리의 잣대라도 형성하듯이 그렇게 믿으며 세상을 바라봐왔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를 머릿속에 만들어왔다.” 이성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늘 말이 개입되면서 단면적으로 혹은 왜곡된 모습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 굳이 계몽주의 인문학자 헤르더^{Herder(1744-1803)}가 언어를 생각하는 인간의 조건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인간과 이성은 한 몸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⁹⁾ 인간의 생각은 늘 근거 없는 실체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온갖 트라우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성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이 현실, 이 인생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인간은 영생을 꿈꾸며 천국과 같은 이상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곳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상상하면서, 신의 곁에서만 진정한 삶이 펼쳐진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지금과 여기와 상관없다면 언제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증명하려 해도, 비록 그것이 천년이 넘게 진리로 간주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것들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늘 ‘천국이 있다’, ‘신이 네 곁에 있다’고 가르쳐왔어도 신자는 또다시 묻는다. 천국이 있을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질문에 확신할 수 있는 대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믿고 싶을 뿐이다.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허무주의 철학이 욕을 먹기도 한다. 천국과 신에 대한 가능성조차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래도 니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이런 대목에 와서 더욱 또렷해지고 커져만 간다.

무한한 수평선. - 우리는 육지를 떠나 출항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의 육지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니 우리의 배여, 앞을 바라보라!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 대양이 항상 포효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 그것은 비단과 황금, 자비로운 꿈처럼 그곳에 펼쳐져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대양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오, 한때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다가 이제 새장의 벽에 몸을 부딪고 있는 새여! 마치 육지에 자유가 있었다는 듯 향수가 너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육지”는 이제 없다! (199쪽)

허무주의가 도래했다. 육지는 이제 없다. 이제 바다만이 있을 뿐이다. 바다! 항해만이 할 일이다. 돌아갈 곳도 없다. “우리는 육지를 떠나 출항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뒤의 육지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다. 미련 없이 끊어버렸다. 그것이 허무주의의 방식이다.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산타 마리아 호에 올라탄 르네상스의 선원들은 가던 길을 돌아서고자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세상 끝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모험 여행에 동참을 했었다. 그리고 신천지를 발견했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도 항해를 시작했다.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의 배여, 앞을 바라보라!”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다.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앞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문제일 뿐이다. ‘부모님, 왜 저를 낳으셨나요?’하며 오염할 여유가 없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삿대질할 겨를이 없다.

9) , Herder: Abhandl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Stuttgart 1981, 37쪽.

태어난 이상 인생은 자기 책임이다. 이제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자기 자신의 항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럴 만큼 성숙해졌다면 말이다.

그리고 허무주의적 현실 인식을 대변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복음1:23)라는 임마누엘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 절대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허무주의가 진정으로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 따위도 이제는 필요 없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반시대적¹⁰, 3)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대양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양이 항상 포효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 그것은 비단과 황금, 자비로운 꿈처럼 그곳에 펼쳐져 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 대양의 상황은 늘 한결같지 않다.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런 상황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 대양은 포효하기도 하고 비단처럼 펼쳐져 있기도 하다. 어느 쪽을 좋다 나쁘다로 판정하면 안 된다. 선과 악으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그 대양이 야속할 때도 있는 법이다. 어떤 때는 포효하는 그런 대양에 감사를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대양은 무한하다. “하지만 언젠가 이 대양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우리 곁에는 대양이 있음을 알라고 했다. 그리고 그 대양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친다. 함부로 폄하하지도 말고 까불지도 말고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이다. 대양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저 세상에 가는 것을 기뻐할까? 아니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까? 어느 쪽의 감정이 더 클까? 기쁠까? 슬플까? 차마 말하기가 힘들다. 그저 말하기 전에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니체가 스승으로 간주했던 쇼펜하우어도 이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현상계 자체가 이미 무한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에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작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¹⁰⁾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는 예기다. 모든 시작이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다. 세상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시간이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창조설로 해석하자면 시간이 먼저겠지만 니체의 생각은 다르다. 세상은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 그 세상을 혼돈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일 뿐이다. 세상은 혼돈도 질서도 아니다.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저 무한할 뿐이다.

또 쇼펜하우어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다. “이 행성은 유기체 내의 화학적 힘들과 마찬가지로 중심 천체에 여러 가지로 의존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거기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계속적인 긴장이 생기는 것이다. 우주를 운행시키는 이 긴장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가 바로 고찰하고 있는 의지의 현상에 본질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투쟁의 표현이다.”¹¹⁾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의지의 현상이고, 이 의지의 현상은 투쟁의 표현이다. 하나의 노력으로 나타난 의지는 우주를 운행시키는 긴장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무한한 시간과 함께 공간 또한 무한하다. 우주의 끝 같은 것은 태초나 종말처럼 이성으로나 상상해 낼 수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저 무한하다.

10)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86쪽.

11)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258쪽.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이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이 대양이 무한하다”는 것과 그 “무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는 인식이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과 그 신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는 그런 인식이 아니다. 우리 곁에 펼쳐져 있는 대양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허무주의적 인식이다. 허무주의적 인식 속에는 신적인 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양만이 무한히 펼쳐진다.

무한이 느껴질 때 인간의 이성은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고 만다. 좌절감이 엄습한다. 한탄의 소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오, 한때 자신을 자유롭다고 느끼다가 이제 새장의 벽에 몸을 부딪고 있는 새여! 마치 육지에 자유가 있었다는 듯 향수가 너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육지’는 이제 없다!” 향수를 느낀다면 허무한 일이다. 어머니의 품속을 동경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것이다. 이제 자기 인생에 어머니의 자궁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신의 은총처럼 보호받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되돌아갈 수 없다. 육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출항을 했고 되돌아갈 다리도 끊어버렸다. 이제 이 대양에서 살아 남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이다.

대양 앞에 우리는 새장에 갇힌 존재와 같다. 깨닫지 못하면 무한히 작은 존재의식 속에서 끝도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명력은 건잡을 수 없이 빠져나갈 것이다. 삶에 대한 의지는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중력의 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이다. 쓰러진 자는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일어서고 싶으면 스스로 넘어졌던 그 땅을 다시 짚고 일어서야 한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배여, 앞을 바라 보라!” 다른 곳을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다. 뒤를 돌아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은 없다. 살고 싶으면 앞을 바라보라! 이것이 허무주의적 시선이다.

항해! 인생은 항해와 같다. 무한한 대양에서 전진해야만 하는 항해와 같다. 그래도 절망적인 항해는 아니다. 니체의 허무주의적 항해는 희망적일 뿐이다. 이런 긍정적 느낌의 항해에 대해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청춘을 생각하면서 나는 외친다. 육지! 육지! 어둡고 낮은 대양 위에서 열정적으로 찾아 헤매는 항해는 이제 너무나 충분하다! 이제 드디어 해변 하나가 보인다. 그것이 어떻든 거기에 상륙해야 한다. 최악의 피난항일지라도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무한함 속으로 비틀거리며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우선 육지를 단단히 붙잡자. 나중에 좋은 항구를 발견할 것이며 후손들이 좀더 쉽게 상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반시대Ⅲ, 377쪽) 언젠가는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줄 것이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끝은 와줄 것이다. 대양은 무한하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발을 디딜 수 있는 육지는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육지를 찾고자 하는 의지, 즉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5. 허무주의의 지혜를 들려주는 광인의 목소리

이제 125번 잠언까지 왔다. “광인”이라는 제목의 잠언이다. ‘미친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한 제목이다. 니체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잠언들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독서가 여기까지 와줘서 기쁘다. 힘든 항해가 여기까지 와줘서 감개무량하다. 두 페이지를 가득 채운 분량이다. 그래도 힘든 계곡을 꾸준히 올라와줬다면 이제 능선을 걷는 기분이 들 것이다. 저 멀리 산정상이 보이는 기쁨이 함께 해줄 것이다. 주변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땀을

씻어줄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이제 니체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자.

광인, -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그곳에는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신을 잃어버렸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신이 숨어버렸는가?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신이 배를 타고 떠났는가? 이민을 떠났는가? 이렇게 그들은 웃으며 떠들썩하게 소리쳤다, 광인은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꺾이는 듯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무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한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인가? 어떤 속죄의 제의와 성스러운 제전을 고안해내야 할 것인가? 이 행위의 위대성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 아닐까?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보다도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광인은 입을 다물고 청중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청중들도 입을 다물고,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등불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등불은 산산조각이 나고 불은 꺼져버렸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둥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날 그 광인은 여러 교회에 뛰어들어 신의 영원 진혼곡을 불렀다고 한다, 밖으로 끌려나와 심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199

쪽 이후)

따옴표로 묶여진 광인의 소리는 모두 네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라는 소리를 두 번 반복했다. 간절함이 읽혀진다. 광인은 신을 찾고 있었다. 허무주의 철학이 찾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신이다. 광인이 찾고 있던 신이 바로 허무주의의 신이기도 하다. 니체는 광인을 내세워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상한 소리와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은 비아냥거린다. "신을 잃어버렸는가?"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하고.

두 번째는 신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소리가 쏟아진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고. 신을 상실한 인간은 이제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위로의 최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을 죽인 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허무한 상황이 펼쳐진다. 대양이 곁에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절망할 일은 아니다. 광인은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세 번째는 광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청중들에게 던지는 안타까운 소리다.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기에는 비유가 하나 눈에 띈다. 번개와 천둥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다. 번개가 치고 나면 천둥이 들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광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세 번이나 반복하게 된다. 천둥의 소리를 들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별처럼 멀리 있다고 말이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별에서 일어난 소리를 듣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소리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빛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가르침이 진정한 배움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진리는 광인의 소리로 취급받는 것을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교회가 신의 무덤이란단다. 교회가 신의 묘비란단다. 광인의 소리다. 미친 자의 목소리다. 신을 찾고 있던 광인은 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신의 영원 진혼곡"을 불러댄다. 신의 죽음을 전한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 그런 신을 찾고 있다.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신을 찾고 있다. 신이 된 인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은 이제 교회 안에 없다. 신은 시장에서 찾아져야 한다. "중대한 문제들은 길거리에 존재한다"(아침, 143쪽)고 했던가.

왜 니체는 광인의 목소리를 선택했을까? 앞서 "집단의 양심이 가책"이라는 잠언에서 니체는



"나는 사람을 찾고 있소Ich suche einen Menschen."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바닥에서 인간을 찾고 있는 광인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는 키닉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힌다.

이미 "광기"(193쪽)라는 개념을 사용했었다. 광기를 보이는 사람, 광인! 한마디로 미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혼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집단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스스로 신이 된 그런 사람이다. 개인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개인성에서 신성을 찾는 사람이다. 니체가 찾고 있는 허무주의의 이상형이다.

철학자로서 광인은 디오게네스Diogenes(ca. 400-323)가 대표적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는 이런 잠언을 남겼었다. "현대의 디오게네스 - 인간을 찾기 전에 등불을 찾아두어야만 한다. - 그것이 키닉 학파

의 등불이어야만 할까? -”(인간적Ⅱ, 237쪽) 니체는 질문 뒤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감을 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직 소리로 형성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침묵으로 그 말의 씨앗을 키웠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에 와서 125번의 “광인”이라는 잠언을 완성시켰다. 인간을 찾았던 고대의 광인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에게서 니체는 진실을 보았던 것이다.

니체는 신을 찾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신이니 하는 소리는 허무주의적이지 않다. 허무주의가 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이다.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다. 인간은 그럴 자격이 있다. 허무주의는 인간이 신이 될 자격을 선포하는 철학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허무할 뿐이다. 그 외의 모든 신성은 허무할 뿐이다. 진정한 실존은 인간성 속에서 신성을 발견할 때 가능해진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 아름답다. “세계의 실존은 오로지 미적 현상으로만 정당화된다.”(비극, 16쪽) 니체의 처녀작부터 외쳐대는 목소리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신의 죽음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자들이 많다. 아직도 중세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지금은 근대를 거쳐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가 진행 중이다. 니체는 현대 이후를 가르치려고 한다. 현대는 과거에 신이 있던 자리에 자본이 대체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의 철학이라는 얘기다. 미래는 늘 한발 자국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현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미래는 늘 우리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미래가 우리의 시대가 되지는 못한 것이다. 그토록 고대하던 미래가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직 번개만 인식했을 뿐이다. 천둥의 소리는 아직 요원하다.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천둥이 칠 것이다. 그 소리는 오고 있는 중이다. 그 천둥이 도착할 때까지 무한한 대양을 끊임 없이 항해해야 할 것이다. 포기는 없어야 한다. 삶은 천둥소리와 함께 출현해줄 새로운 육지 위에서만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6. 위험한 인생 속의 위대한 인간들

허무주의 철학은 인생을 대양과 비교했다. 혼자서 건덕내야 하는 곳이다. 불교에서는 고해(苦海)라고도 부른다. 고통의 바다란 뜻이다. 눈물이 모이고 모여 이룬 바다라고나 할까. 눈물의 바다! 그곳이 세상이다. 이 눈물 위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불교가 성화로 자주 그리는 연꽃은 바로 이 눈물 위에 피어난 꽃이다. 눈물. 얼마나 흘러야 바다가 될까? 그리고 그 무한한 눈물 위에 꽃을 피워야 한다니.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험성, - 그대들은 그대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대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을 달려가다가 넘어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하지만 취기 덕분에 사지를 부러뜨리지는 않는다, 그대들의 근육은 너무 이완되어 있고 머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계단의 돌들이 얼마나 딱딱한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에게 인생은 커다란 위험이다, 우리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니 - 충돌하면 고통스럽다! 그리고 굴러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 (219쪽)

계단의 돌들은 딱딱하다.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는 유리와 같다. 충돌하면 고

통스럽고 넘어지면 금이 갈 것이며 굴러 떨어지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범인凡人은 살면서도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질문은 끝도 없이 반복되지만 답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끝도 없이 답을 추궁하다가 끝내는 공부처럼 허무한 것이 또 없다.

취생몽사醉生夢死란 말이 있다. 술에 취해 살다가 꿈을 꾸며 죽어간다는 뜻이다. 흐리멍덩하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 성공을 꿈꾸며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자본주의의 이념에 휘둘러 한평생을 돈만 추종하며 길을 걸었다. 그 길의 마지막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업은 늘 새로운 상품으로 유혹의 손짓을 한다. 죽어가는 목숨에게까지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안달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현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한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한 현대는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을 달려가다가 넘어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끔찍하다. 정말 허무한 삶이 아닐 수 없다. 유리로 살다가 깨져서 삶을 마감한다. 나약한 존재로 살다가 산산 조각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를 어찌랴.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살만한 이유가 도대체 있는가?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 부자가 행복한가? 그런 행복이 허영과 자만을 불러온다. 그런 행복이 고속도로에서 파렴치한 폭주족을 만든다. 그런 행복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배우자를 죽인다. 현대는 극단까지 왔다. 이제는 이 육지를 떠나 대양으로 향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되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련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이다.

미련한 정신으로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대들의 근육은 너무 이완되어 있고 머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계단의 돌들이 얼마나 딱딱한가를 알지 못한다!" 인생의 계단은 돌로 형성되어 있다. 올라가기에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겠지만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계단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근육을 너무 이완시켜놓는 다던가 머리를 가상세계에 처박아놓고서 걷는다면 헛발질은 시간문제이다. 허무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허무주의적 현실 인식은 가혹하다. "네 곁에는 대양이 있다"^(199쪽)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과 함께 임마누엘의 신은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를 선포한다. 신을 향한 희망은 잘라버린다. 천국을 향한 열망을 꺼버린다. 허무주의의 발걸음은 신을 죽이는 대신 스스로 신이 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 신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살려내려고 애를 쓴다. 그것도 그냥 삶의 현장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으려는 것이다. 신의 형상으로! 그 신은 "그리고 너의 종족을 존경하지 않는 / 나를 닮은 종족을"⁽¹²⁾ 만들어내고 있는 거인 프로메테우스를 닮아 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 - 우리는 위대한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발견해왔다,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위대한 인간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정반대였다, 자연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우리와 달랐다. ^(219쪽)

12)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239쪽.

스스로 신이 되지 못한 인간에게는 결여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위대한 인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위대한가? 신의 창조물이라고 간주되는 이 세상이 위대한 것일까?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닮아 있다고 긍지를 가져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하고 자기 인생을 떠맡겨야 할까? 허무주의 철학은 이 모든 것에 거부 의 손짓을 보낸다. 이 모든 것에 허무함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허무주의는 도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신비주의적 해석, - 신비주의적 해석은 심오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이러한 해석은 피상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1쪽 이후)

현실을 무시한 신비주의적 해석은 모두가 허무하다.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비현실적이다. 하늘만 바라보며 인생을 허락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위험하다. 인생은 돌계단이라 했다. 내려갈 수도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뒤로 돌아가는 다리는 끊어버렸다고 했다.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삶은 시간으로 채워져 있고, 그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간다.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점쟁이에게 미래를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 말에 자신의 미래를 규정할 수는 없다. 모든 신비주의적 해석은 해석된 세계 자체를 위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석이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현상조차 실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신비주의의 힘이다. 눈을 가리고 세상을 보게 한다.

위험한 결심, - 세계를 추악한 것으로 보려는 그리스도교의 결심이 세계를 추악하게 만들었다, (205쪽)

현실 세계가 좋은 것이라면 신앙이 필요 없다. 삶 속에서 웃을 수 있다면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종교는 이런 것을 경계한다. 특히 기독교는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실망을 일깨운다. 현실 속 삶이 짐을 지고 있는 힘든 상황임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11:28)고 위로한다. 쉬기 위해서 신에게로 다가갈 작정을 해야 한다. 그를 믿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11:1)라고 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17:20-21)고 했다. 그러니 믿음의 실상을 뭐라고 말한들 증명할 길이 없다. 다 맞기도 하고 또 다 틀리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신에 대한 믿음은 현실부정을 전제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16:24)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거부!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 가르침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으려면 자기 안에 우선 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무주의적 시각에서는 “위험한 결심”일 뿐이다. “세계를 추악하게 만든 장본인은 “세계를 추악한 것으로 보려는”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는 노예들의 종교였다. “기독교는 고대의 다른 종류의 노예들, 즉 의지와 이성인 약한 노예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노예들을 위해 만들어졌다.”(아침, 405쪽) 노예들은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열광한다. 노예들의 세계관은 현실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래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내세를 열망한다. 최후의 종말까지도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만다. “즉 기독교인은 희망 속에서, 즉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위안 속에서 산다.”(같은 곳) 낭만주의적 낙천주의다. 낙천주의적 희망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희망의 싹을 자르고자 한다.

7. 삶을 위한 허무주의적 결단

이제는 삶이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다. 니체의 본능은 “삶을 옹호하는 본능”(비극, 18쪽)이라고 했다. “그대들은 우선 차안의 현세적 위로의 예술부터 배워야 한다.”(비극, 22쪽)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성적 존재에게 말로 해주는 위로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말로 다할 수 있는 존재가 말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구원의 순환논리다.

우리는 사물에 새로운 색을 부여하고, 또 그 위에 거듭 새로운 색을 칠하고 있다. (218쪽)

니체가 허무주의 철학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온갖 사물에 새로운 색을 칠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영받지 못했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삶의 현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똑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해석은 늘 달라졌다. 때로는 이것이 각광을 받고 때로는 저것이 각광을 받아왔을 뿐이다.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는 낯두리도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였다. 모두가 죽어가는 전쟁 속에서 누구는 온갖 기회를 누리기도 한다. 그것이 삶이다.

삶의 현장은 절대로 옳음과 그름으로 나눌 수 없다. 선과 악으로 결정할 수 없다. 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진리의 모습도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달라진다. 하지만 변화 그 자체가 궁극적인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허무주의적 발상이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은 기존의 것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을 때이다. 허무가 인식되었을 때이다. 정의라고 판정받았던 것이 이제는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 한 인간이 자신의 시대 전체에 대항하여, 시대를 문 앞에 막아 세우고 결산을 요구하는 일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그것을 원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9쪽)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소리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 재밌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이 놀이터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도 할 수 없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어찌 할 수 없어서 벌어진 것이다.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이미 반대의 목소리가 갖는 의미를 역설했었다. 변화를 원한다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떠나려 할 때는 보내줄 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어도 마음으로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한다면 그래

야 한다. 적당한 때에 기억할 줄 알고 적당한 때에 잊을 줄도 알아야 한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망각에 대한 남다른 각오이다. 년말년시가 되면 흔히들 망년회를 연다. 잊자는 의도에서 벌어지는 행사이다. 잊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시대 전체에 대항하여, 시대를 문 앞에 막아 세우고 결산을 요구하는 일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누가 과연 시대 전체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허무주의적으로 대답을 원한다면 미쳐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광기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동안 이성적인 것으로 인정받아온 것을 부정해야 할 때 취해야 할 것은 그저 비이성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이 광기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다.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대 전체에 대항하고자 한다면 이런 미친 짓을 감행해야 한다.

이런 미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 문제’에 관하여”라는 잠언에서 니체는 “웃음이 결여되어 있다”(226쪽)는 것을 지적했다. 웃는 자는 가벼워 보인다는 것이다. 웃는 자가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볍고 바보 같은 사람만큼 자유로운 존재가 없다. “바보처럼 입 벌리고 살라”(13)는 말이 지혜로 들릴 때 허무주의 철학은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바보처럼 속이 비어 있을 때 지혜로운 소리가 채워진다. 텅 빈 종^鐘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낸다. 속이 공^空과 무^無로 채워진 종이 해탈의 소리를 자아낸다. 웃음이 해탈의 현상이다. 웃음이 “신성한 것”(비극, 23쪽)이다.

그리고 허무주의는 뒤따르기보다는 앞장서기를 더 선호한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한 자유는 없다. 타인의 의지를 자기 자신의 의지인 양 그렇게 간주하는 한 노예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허무주의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 아무리 상세한 지도라 해도 현위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양을 앞에 두고도 주눅 들지 않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인간이라는 출발점에 서 있다. 산타 마리아 호는 인문주의의 선두에서서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뒤따르는 것과 앞장서는 것. - A.: “운명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항상 뒤따르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앞장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과 정신에 있어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월하다!” B.: “하지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다, 나와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다! -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Fit secundum regulam.” (227쪽)

도덕은 뒤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말 잘 듣는 것을 아름답다 착하다고 말한다. 복종으로 번역되는 독일어는 ‘게호르잠’^{Gehorsam}이다. 그 어근에는 ‘회렌’^{hören}이라는, 말을 혹은 소리를 듣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늘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일 좋게 평가한다. 그것이 도덕이다. 도덕의 영역에서 무조건적 복종은 최상의 미덕이다.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믿으며 따를 때 구원을 약속받는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다른 소리를 낸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일 뿐이다. 그것은 “나와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다!” 니체는 이 말에 느낌표까지 찍어놓았다. 역설한 흔적이다. 강조를 했던 소리라는 얘기다. 제발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귀가 따갑게 들려주는 허무주의의 소리는 다른 것이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야 들리는 그

13) : 바보처럼 입 벌리고 살라!, in: 한국산문, vol. 117, 한국산문작가협회 2016.01, 30쪽.

런 중소리와 같다.

고독 속에서, - 사람이 혼자 살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게 되고, 또한 글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게 된다, 공허한 반향이 두렵기 때문이다 - 요정 에코의 비판, 그리고 고독 속에서는 모든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227쪽)

고독! 대양이 곁에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 속에서는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사실 말조차 필요 없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는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사이의 대화를 집필한 적이 있다. 방랑하는 자가 처한 곳은 대양도 되고 사막도 된다. 고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은 침묵일 수도 있다. “아무에게도 말 해선 안 돼!”(인간적II, 219쪽)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는 오히려 “공허한 반향”만이 있을 뿐이다. 혼자자가 된 상황에서 공허한 반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그 반향이 클수록 정신은 극단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위험, - 목소리가 큰 사람은 섬세한 것을 생각할 능력이 거의 없다, (236쪽)

인생은 큰 일들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수많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섬세한 것을 생각할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가장 사소한 것과 가장 일상적인 것에 무지하고 예리한 안목이 없다는 것, -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재앙의 초원’으로 만드는 것이다.”(인간적II, 224쪽) 사소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 시선이 이 땅을 푸른 초원으로 인식하게 해줄 것이다.

허무주의는 고독을 가르친다. 고독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 “고독 속에서는 모든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고독 속에서 모든 목소리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는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선다. 처음에는 그 다른 앞에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고독 속에서 복잡한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사상가, - 그는 사상가이다, 이 말은 그가 사물을 본래의 상태보다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229쪽)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사물을 본래의 상태보다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 줄 안다는 것”이 허무주의가 지향하는 인식의 경지다. 설명되고 해석된 진리는 너무도 복잡하다. 그런 진리는 현실 세계를 오류라고 평가했다. 그런 진리 앞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겨놓았다. “오류는 진리보다 단순하다Error veritate simplicior”(아침, 188쪽)라고. 바꿔 말하면 진정한 진리는 단순하다는 것이다. 사상가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가 바라본 것을 단순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진정한 사상가의 모습이 아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이 사상가를 사상가답게 해주는 것이다. 길 없는 곳에서 길이 보일 때 길을 걷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

8. 삶의 의무로서의 즐거움

즐거움은 삶은 슬픈 삶을 전제한다. 행복은 불행 없이 불가능하다. "투쟁 없는 승리는 없다"¹⁴⁾고 했다. 전쟁 없는 승리는 모순일 뿐이다. 승리감을 맛보고 싶다면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 그것도 진정한 승리감을 원한다면 목숨을 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순간은 이런 짜릿한 승리감에 의해 실현된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위한 훈련장이나 다름이 없다. "삶의 사관학교로부터 -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상, 77쪽) 삶의 사관학교! 그곳이 바로 허무주의 철학이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은 다름 아닌 삶을 위한 것이다. 삶을 체험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곳이다. 치열함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삶이다.

행복에의 길, - 현자가 바보에게 행복에의 길을 물었다, 이웃 도시로 가는 길을 묻기라도 한 것처럼 바보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너 자신에게 경탄하며, 골목에서 살아라!" 현자가 외쳤다, "잠깐만,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구나, 자신에게 경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보가 응답했다, "하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경멸하지 않고, 어찌 끊임없이 경탄할 수 있겠는가?" (235쪽)

바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자. '바보처럼 살라'는 말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치 "이웃 도시로 가는 길"처럼 간단하다. 그는 두 가지만을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가르쳐준다. "너 자신에게 경탄하며, 골목에서 살아라!" 행복에의 길을 물었던 현자는 이 두 가지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다. 그는 "자신에게 경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즉 골목에서 사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골목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골목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 바보의 가르침에 다시 귀를 기울이자. "하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경멸하지 않고, 어찌 끊임없이 경탄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골목으로 내몰아야 한다. 경멸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극단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탄은 경멸을 전제한다. 창조는 파괴를 전제한다. 웃음은 눈물을 전제한다. 행복은 불행을 전제한다.

"선"과 "악"의 기원, -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다. (243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좋지 않다는 느낌에 의해 생겨난다. 좋지 않다는 느낌이 없는데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개선에의 의지는 좋지 않다, 나쁘다, 불편하다 등의 느낌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선, 즉 좋은 것은 편한 것이다. 악, 즉 좋지 않은 것은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선과 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한때는 좋았던 것이 다른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한때는 불편했던 것이 다른 때는 편한 것이 될 때도 있다. 삶이란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다시 봄이 시작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14)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254쪽.

낙원으로부터, - “선과 악은 신의 편견이다” - 이렇게 뱀이 말했다. (248쪽)

바보, 광인, 그리고 이번엔 뱀의 목소리다. 신의 낙원에 최초의 인간과 함께 있던 존재다. 그의 가르침은 “선과 악은 신의 편견이다”라는 것이다. 편견은 하나를 고집할 때 생겨난다. 하나를 정답으로 고정시킬 때 나타난다. 편견은 생각의 틀을 형성하고 그것 외에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다. 편견은 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편견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일방적이기만 하다. 편견은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함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함께 살 수 있기 위해 고독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지 못해 타인을 요구하는 삶만큼 위기에 처한 인생이 없다. 기쁨은 이런 삶에서 찾아볼 수 없다. 허무주의 철학은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긍정적임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즐기고 기뻐하며”¹⁵⁾ 살 수 없다면 프로메테우스의 거인적인 삶이 아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거인의 징표이다. 행복은 승리자의 얼굴에서만 나타난다. 웃음은 ‘신성한 것’이다.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명제다.

꿈꾸는 것. - 꿈을 꾸지 않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꿈을 꾸든지 해야 한다.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깨어 있지 않든지, 재미있든지, (240쪽)

이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꿈을 꿀 수밖에 없다. 하지만 꿈을 꿀 때는 반드시 행복한 꿈만 꾸라고 권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행복하지 않은 꿈일까? 어떤 꿈이 불행한 꿈일까? 그것은 분명 삶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꿈이다. 지금과 여기를 포기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고 저기에 집착할 때 꿈은 삶 자체를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꿈이다.

그리고 의식이 있을 때, 즉 “깨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깨어 있지 않든지, 재미있든지.”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정언명법이다. 지상명령이다. 깨어있으려면 재미있어야만 한다. 깨어있으면서도 재미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무주의적 삶의 방식이 아니다. 꿈을 꾸지 않든지, 재미있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깨어 있지 않든지, 재미있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즐거움만이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불행은 모두가 행복을 위한 전제가 될 뿐이다. 삶의 목적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불행은 적극적이다. “모든 충족, 또는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또 본질적으로 언제나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며, 결코 적극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¹⁶⁾ 늘 불행이 먼저다. 싸워야 할 것이 있을 뿐이다. 쟁취하고 싶으면 싸워서 얻어야 할 뿐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예레미야애가5:9) 이것이 곧 진리다. 우리 곁에는 대양이 있을 뿐이다. 항해를 해야 하는 곳이란 뜻이다. 하지만 불행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적 삶의 자세인 것이다.

기쁨을 모르는 인간, -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집안 전체에 우울하고

15)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239쪽.

16)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512쪽.

찌푸린 하늘을 드리우게 된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기적에 가깝다! 반면에 행복은 그리 전염성이 강한 병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 (242쪽)

행복에 비해 불행은 전염성이 강하다. 불행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소극적인 행복은 자기주장이 불행에 비해 강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소극적인 행복이 기를 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산 자의 의무이다. 행복에의 길은 골목 안에 있다. 인생에서 모든 “중대한 문제들은 길거리에 존재한다”(아침, 143쪽)고 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니체는 ‘발로 쓰기’(56쪽)를 선호한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글을 쓴다. 그런 글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편하할 때 우울증이 고개를 든다. 한 집안에 우울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집안 전체가 우울해진다. 병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 불편해진다. 질병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질병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든 기간이 짧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행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패배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승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진다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자유를 획득했다는 징표는 무엇인가? -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251쪽)

허무주의의 이념 속에는 삶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삶을 설명하기 위해 죽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신을 끌어들이기 뿐이다. 니체는 오로지 삶을 위해 허무주의라는 고독한 길을 선택한다. 삶은 무한한 대양 곁에 있다. 이것이 허무주의적 임마누엘이다. 세상은 무한하다. 무한한 만큼 알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실망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 무한한 삶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낫다. 신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보다 자기 자신의 삶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이 더 낫다. ‘너는 어디 있는가?’ 이것이 허무주의적 질문이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오로지 자기 삶의 자기 삶에 의한 자기 삶을 위한 회개여야 한다. 그 이외의 눈물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떠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삶은 위기를 자초한다. 덮어진 물을 다시 담으려 할 때 인생은 꼬이고 만다.

하지만 궁극적인 자유를 지향하는 허무주의는 결국에 가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17)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다. 극복에 극복을 거듭하여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경지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스스로는 날갯짓도 하지 않고 높이 나는 알바트로스처럼 높은 곳에 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자랑스럽다. 좀더 진전된 표현이라면 그 주어의 자리에 ‘나’를 넣어보는 것이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자랑스럽다.’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허무주의 철학이 선사하는 신성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용 (010-3261-3913;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germanistik>)

17)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위의 책, 37쪽.